

[경제]

■ 전문가들이 뽑은 '10년 후 유망직종'

컴퓨터 보안 전문가 뜨고 의사·변호사는 위상 추락

"10년 후에 임금이나 사회적 위상이 크게 높아질 직종은 어떤 분야일까?" 2015년에는 컴퓨터 사용의 증가로 컴퓨터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컴퓨터 보안전문가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의사와 변호사 등은 내부 종사자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직업적인 특권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노점 및 이동판매원, 주유원 등은 현재보다 임금수준이 더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1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367개 직업에 대해 직업별로 25~35명의 전문가들을 상대로 인력수급 전망을 최근 조사한 결과 2015년께 소득 수준이 가장 크게 향상될 직업으로는 컴퓨터 보안전문가 5점 만점에 4.41점으로 1위를 차

▶ 사회적 위상 높아질 직업

상담 전문가·해외 영업원

▶ 고용 증가율 높아질 직업

손해사정인·통역가·회계사

컴퓨터 시스템 설계·분석가(4.15점), 해외영업원(4.12점), 자연·생명과학 관련 연구원 및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 관리자(각 4.10점), 금융자산운용가 및 상담전문가(각 4.07점) 등 순이었다.

임금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 직업으로는 노점 및 이동판매원(2.59점)이 1위로 꼽혔고 주유원(2.61점), 계산원·매표원(2.65점), 방문판매원(2.71점), 매장경리원(2.74점),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자(2.81점), 법무사 및 변호사(각 2.81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회적 위상이 현재보다 높아질 직업에 대한 조사에서도 컴퓨터 보안전문가가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상담전문가와 해외영업원, 문화·

상승 10선	하락 10선
컴퓨터보안전문가	노점 및 이동판매원
기업고고위임원	주유원
항공기장비원	계산원(캐셔 및 카운터)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조작원	방문판매원
컴퓨터시스템 설계·분석가	매장경리원
해외영업원	연금영수증
자연·생명과학 관련 연구원	원양 어부 및 해녀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 관리자	고무제품제조 관련 조작원
금융자산운용가	출판창구 사무원
상담전문가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자
	법무사

(5점만점 자료제공: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예술·디자인·방송관련 관리자, 환경 및 보건위생검사원 등이었다.

고용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관측된 직업으로는 손해사정인과 통역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회계사, 레크리에이션 진행자 및 스포츠 강사 등이 꼽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는 "자격이나 면허에 기초한 의사와 변호사는 내부 종사자간의 경쟁이 치열해면서 현재와 같은 직업적인 특권이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직업에 적성과 능력에 상관없이 과도하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증시 '핵 그늘' 걷힐까?

北 6자회담 복귀 '안도 랠리' 기대

국내 주식시장에 드리웠던 '핵 그늘'이 이제 걷힐까.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도 랠리'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간 글로벌 증시 랠리에서 소외된 채 계절음을 거듭하면서 증시가 비로소 지정학적 리스크를 털어내고 반등의 계기를 찾았다는 기대심리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1일 코스피지수는 이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1,370선을 기록해 회복 한 달여 만에 북한 핵실험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코스닥지수 역시 590선 위로 뛰어오르며 핵실험 충격 이후 낙폭을 대부분 마겼다.

증시 전문가들은 북한의 6자 회담 복귀가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 간 격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물론 향후 전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지만 투자심리 개선을 바탕으로 증시가 박스권에서 탈출하는 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대한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로 그간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주축인 국내 주식형펀드의 자금유입 가속화, 외국인 매도 진정 등의 경로를 통해 차츰적으로 한국증시와 해외증시가 이격을 축소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는 6자회담 전망이 불투명한데다 증시가 그간 북한 핵실험 악재를 충분히 소화하는 흐름이 전개돼 왔기 때문에 일과성 호재에 그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오히려 최근 조정 국면으로 진입한 뉴욕 증시의 향배, 한계 수위에 도달한 프로그램 매수차의 임고, 외국인 매도공세, 주식형 펀드의 자금 유입세둔화 등이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 지점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내년 신고포상금 51개 72억

탈세정보 보상금 68% 급증

내년도 국세청의 탈세관련 신고포상금 예산이 올해보다 71% 늘어나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찰 등 권리기관의 직원 비리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집행실적은 아예 없어 관련 포상금 예산도 내년에 대폭 줄었다.

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4개 정부부처가 운영중인 각종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는 모두 51개에 이른다. 또 내년도 신고 포상금 예산액은 72억4천800만원으로 올해의 67억1천100만원보다 8%가 증가했다.

아울러 작년에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모두 39억1천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65억9천800만원의 59%에 머물렀다. 신고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제도는 전체의 절반에 이르렀다.

국세청의 탈세정보 보상금 예산은 내년에 12억4천만원으로 올해의 7억4천만원에 비해 67.6%가 늘어났다. 체납자의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탈세·체납관련 포상금은 8억4천만원에서 14억4천만원으로 71.4%가 늘었다.

/연합뉴스



국제식품전시회

국내외 농산물과 가공된 전통식품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서울국제식품전시회가 1일 aT 주최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막된 가운데 국내외 관람객들이 전시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전시회는

4일까지 계속된다.

/연합뉴스

‘행복의 조건’ 韓國人-돈, 中國人-건강

직장인 2,240명 조사

韓 11% · 中 18.5%

“나는 지금 행복하다”

한국 직장인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서 경제적인 여유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반면 중국 직장인들은 행복의 조건 1위로 건강을 들었다.

1일 채용포털 잡코리아가 중국 HR

업체 차이나HR닷컴과 공동으로 한

국 직장인 1천203명, 중국 직장인 1

천37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

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에 대해 질문한 결과(복수응답) 한국

응답자의 45.4%는 ‘경제적 여유’를

으로 ‘건강(85.9%)’, ‘화목한 가정생활(74.5%)’, ‘사회적인 대인관계(71.5%)’ 등의 순으로 꼽아 한국 직장인들과 차이를 보였다.

현재 행복한지 여부를 묻는 항목에

는 한국 응답자의 11%, 중국 응답자

의 18.5%가 각각 ‘그렇다’고 답해 중

국이 한국보다 높았으며 반대로 ‘지

금 행복하지 않다’는 답변은 한국이

37.9%로 중국(28.3%)보다 많았다.

반면 중국 직장인들은 행복의 조건

/연합뉴스

자전거 안전사고 늘어 ‘조립 불량’ 조심

자전거 안전사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안전사고 중 차체의 문제로 인한 사고는 조립불량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조립식 자전거를 구입해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미국 주택 벌의 불과 가능

성까지 대두되면서 미국의 경제성장을

이 2% 이하로 떨어지는 게 지표상으로

확인되면 달리화 압세가 본격화될 것

이라고 정 전무는 전했다.

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9월 말까지 접수된 안전사고는 1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6% 늘었다.

소보원이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접수된 자전거 안전사고 551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안전사고의 75%가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했다. 주로

다친 부위는 머리·얼굴이 41.7%로 가

장 많았고 다리 31.8%, 팔 17.0% 등이

뒤를 이었다.

자전거 차체의 문제로 인한 사고 원인

은 조립불량이거나 부품불량인 경우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브레이크는 26.

7%, 차체·프레임은 11.1% 등의 순이었

다.

/연합뉴스

을 파괴했다고 1일 밝혔다.

전파사용료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주

파수 사용대가로 분기마다 정부에 내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SK텔레콤과 KTF

는 휴대전화 일시 이용정지 서비스 이용

자로부터 번호 유지에 필요한 관리비용

명목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매달 3

천850원을, LG텔레콤은 4천400원을 받

고 있다. 이 중 SKT가 정부에 내는 전파

사용료는 월 800원 정도며 KTF는 약

540원, LGT는 약 500원이다.

/연합뉴스

“내년 한국경제 ‘지뢰밭’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1일 “대내외적으로 볼 때 한국경제는 지뢰밭 위에 있다”면서 “매우 불확실한 상황

이므로 기업은 경영 초점은 리스크 관리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날 능률회원회 주최로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호텔에서 개최된 2007년 경영환경전망 세미나에서 “미국 경제의 경착륙과 북한 문제의 악화가 내년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2대 난기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경제와 관련 그는 “지난 4~5년간 세계 경제는 미국이 초기금리에 기반한

하는 질의에 노준형 장관이 시행방침

하는 질의에 노준형 장관이 시행방침